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1990년 4월 28일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마스터 코스의 졸업식에서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 대표인 해리 팔머가 한 연설의 일부임.

12개국에서 모인 250여명의 사람들이 일주일 넘게 함께 하면서 자비와 음미감상 그리고 기쁨을 최대한으로 경험하는 깊은 존재가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바타 안내와 다른사람에게 빛을 주는 것을 배우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당신은 먼 길을 왔고 아직 더 먼 길을 가야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새롭게 깨어나기 좋은 때입니다. 숭고한 행위과 인간애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나누기 좋은 때입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단과 도구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과대망상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만 망상적입니다. 그렇지 않을때 그것은 대단하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지금 미래가 오늘날을 어떻게 지각할지를 결정합니다. 밝은 지구 문명의 망상을 좇았다고 생각할 지는 당신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해리 팔머

다음은 2007년 6월 국제 아바타 코스에서 해리가 한 연설의 일부임.

여러분을 보니 마치 영화 스타워즈 엔터프라이즈호의 홀로덱(holo-deck: 가상현실을 만들어 내는 곳)에 있는 것 같군요. 이것이 바로 내가 만들고자 했던 아바타 코스입니다.

뜻대로 살기 책에서 신념의 4가지 유형의 관해 간략히 언급해 놓았습니다: 제1형

신념체계는 교리, 교의주입, 통제하는 신념들을 포함합니다. 제2형 신념체계는 인간사회의 일반적인 관습들을 포함합니다. 제3형 신념체계는 과학적 사실에 의존하며, 제4형 신념체계는 원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창조하는 신념 및 자신의 프라이어리를 포함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신념체계가 담고있는 의미들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 계속

Star's Edge International®
237 N Westmonte Dr
Altamonte Springs, FL 32714
USA



마음을 결정하세요 계속



2006년 아바타 워저드 코스 폐막일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해리 팔머, 아바타 교재의 저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단어의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믿는다는 것은 편안해하거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제1형 신념체계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하고 만족하는 신념과 제3형 신념체계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하고 만족하는 신념은 서로 다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내가 “당신을 믿어요,”라고 할때, 내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당신이 내게 말한것에 편안해하거나 만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과 효율성은 내가 왜 어떤 것을 믿는가에 대한 충분요인은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아주 불편하고 스스로 믿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거짓말이 더 믿기가 쉬운데, 그것은 내가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은 믿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내 책임이라말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신념은 진리보다는 편안함과 관계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은 오히려 신념의 안전구역에서 나오게 합니다.

신념은 진리보다는 편안함과 관계된다는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주차장에 코끼리 세 마리가 있어,”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 한쪽에서, “에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코끼리 세 마리가 주차장에 있다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맘 다른 한편에선, “음...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이тона 비치 오션센터에 워저드 코스를 위해 모인것처럼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가 마침 이동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션센터에는 코끼리 문이라 불리는 큰 출입문이 있는데, 코끼리들이 이 문을

나서자마자 우리의 사운드 트럭이 이 코끼리 문을 통과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5분도 안되서 코끼리와 워저드들이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코끼리를 보는 경험을 하게되고, 주차장에 코끼리 세 마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때 과거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럴 수도 있어. 주차장에 코끼리 세 마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1형 신념체계에서는, “맞아. 그건 사실일 수 있어,”는 확실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믿게됩니다, 왜냐면 그건 사실일 수 있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에 더해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봐, 마이크, 주차장에 40마리 코끼리가 있다는 걸 알아?” 난 마이크를 놀리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우절 거짓말같은 것으로요. 그러자 마이크는 주차장에 40마리 코끼리가 있다는 내 말을 의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바보가 되는 것은 편하지기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 해리”, 라며 대답합니다.

“코끼리가 있다는 걸 믿어?”

“아마도.” 그녀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기위해 자신의 경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동안 난 이렇게 놀립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네 차에 올라타고 있어.”

제1형 신념체계의 의도는 옳기 위함입니다. 제1형 신념체계에 있는 사람은 이 신념이 편안하다고 느낄것 입니다: “내가 옳고 그들은 틀려.” 이것은 그들을 전쟁과 투쟁으로 이끄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 가족에

반대하게 하고 이웃이 이웃을 등지게 합니다.
“내가 옳고 그들은 틀려.”

제1형에서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기억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주장의 그럴 듯함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근원이 당신을 옳게 만들고 당신은 설득당하게 됩니다. 제1형 신념체계에서의 설득은 옳고 그름과 연결된 감정들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제1형에서 믿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어떤 것을 말하고 그것이 그럴듯하게 들리면서 감정의 파도를 탑니다. 당신이 옳다고 짐작했던것이 정말 옳고 당신이 그르다고 짐작했던 것이 정말 틀리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또한 큰 집단에서 선출되기 위한 공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그럴싸하도록 말해 옳다는 정의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정치적인 기반들은 제1형 신념체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2형 신념체계로 수준을 높혀 그 단계에서 믿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똑같은 결과를 낳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야 했나요? 그것이 제2형 신념입니다. 제2형 신념들은 상식과 같아 그것을 믿는데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려 그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굳이 확인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을 설득하려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트린 물건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은 투명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물건을 떨어트렸는데 그것이 천장으로 떨어졌다고 말한다면 당신이 옳다는 믿음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 사람을 정신나간 이로 취급하고 넘어갈테니까요. 제2형 신념체계 뒤에 담긴 의도는 관습에 따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합리성은 투명한 신념들에 근거하고 그 신념들은 모두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신념입니다. 만일 당신이 제2형의 신념을 가진 누군가를 설득하길



제1형의 믿음으로는 어떤 진술이 타당한지를 보려고 기록을 확인했지만, 제2형 믿음으로 기억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보지 않고 압니다. 안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확실함을 가집니다. 당신은 알기 전에 인과관계 귀결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야 했나요? 당신이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지 않고 알 수 있을 때까지 항상

원한다면 그들의 규범에 호소해 보세요. 그럼 이제 제3형의 믿는 과정으로 가봅시다. 복잡한 믿는 과정을 경험해 보기를 원한다면 제3형 신념체계를 탐색해 보면 됩니다. 제3형 신념체계에 깔린 의도는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 할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하며,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하지 않는 사실들은 반박합니다. 여전히

• 계속

마음을 결정하세요 계속

제1형 신념체계의 옳고 싶은 충동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3형은 물질 과학의 영역입니다...사실... 가정...명제...원인...이론...특히, 측정 기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측정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는 기계도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3형의 만트라라는, “당신은 그것을 믿을만한 어떤 증거를 가졌는가?”입니다. 제3형의 믿는

이 옆으로 가는 길이 아바타를 다른 수행들과 차별화합니다.

과정에서의 많은 부분이 증거가 뭐일지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형 논거를 확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측정기계를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항상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형의 믿는 과정은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현실 지각에 대한 사실적인 조사이며, 그것은

불잡았고 그 두명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전기충격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두 명의 하버드 심리학자보다 쥐들이 더 현명하다고 보고합니다.

제3형 신념들은 사실이라고 예측되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기계에 의존하는 과학적 증거에 근거합니다. 과학은 인간 경험의 한계를 그렇게 많이 넓힌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인간 경험의 한계를 역행한다는 점에서요. 어쨌든 이런 결점에도 불구하고 난 제3형 신념체계의 큰 팬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최고로 강력한 도구와 중장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로켓트를 탈 수 있는데 왜 의식을 바꾸면서 우주를 횡단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3형의 믿는 것은 제1형의 믿음의 성숙해진 것과 같으며 제2형의 믿는 것은 이 중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과정의 발전을 보도록 합시다. 당신은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서의 회귀 발전해 왔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것은 미신이 과학적 방법으로



투명한 신념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하버드 심리학자의 실험에 따르면 110볼트의 전류를 쥐가 있는 우리의 오른쪽에 흐르게 했더니 쥐들이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실험으로부터 쥐들은 전류를 피할만큼 영리하다는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하버드의 다른 교수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그 전선을 건드렸습니다. 그의 비명 소리에 반응한 다른 심리학자가 피하는 대신 그 심리학자를

진화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달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과정이 완벽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진 옆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우리는 단지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옆길로 새기도 합니다. 전자 진공관이 거의 완벽하게 발전했을 때 대신 트랜지스터(진공관 대신 게르마늄을 이용한 증폭장치)를 쓰는 길이

있었습니다. 프로펠러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거의 완벽해졌을때 제트기 추진력을 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과충류의 비늘이 두꺼워져 최대 절연 가치에 다다랐을때 그 옆에는 깃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달했던 깃털은 비행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아빠타는 제4형 신념체계로 가는 옆길입니다. 제4형 신념체계의 의도는 뜻대로 창조하기입니다. 이 옆으로 가는 길이 아빠타를 다른 수행들과 차별화합니다. 긍정적 사고 방식의 소유자, 감동을 주는 연설가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믿는 것으로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4형의 중요 핵심은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1형, 2형, 3형은 과거 경험을 보고 현재 믿음을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가 믿는 것이 미래 경험을 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옆길로 새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수동적인 관찰과 과거에 무엇이 존재했는가에 대한 추론에 근거하지 않고 미래에 당신이 경험하고픈 것을 창조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는 것을 직접 배울 때, 그 기술은 아주 귀중해집니다. 당신은 경험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충분한 확신으로 신념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와우!

아빠타가 바에 들어가 “난 뭐든지 일이 잘 돼요”라고 말하니 제3형에 속하는 과학자가 측정기계를 꺼내 당신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증거가 있고 합리성이 있다고 반문합니다. 그 아빠타가 “아니요. 나는 그저 모든 일이 잘 돼요”라고 말하자 제2형의 온갖 세컨더리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성주의자가 “당신은 항상 일이 잘 풀린다고 믿는 어떤 근거가 있나?”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2형,3형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매우 동요되어 “그건 미친 생각이야”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망상이고, 증명될 수 없고, 확증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고, 확신할 수 없어. 당신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카드 패를 다시 섞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것이 편안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개념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창조하지 않은 것에는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4형에서 신념의 정의는 “편하기 위함” 보다는 “앞으로 창조하기”에 더 가깝습니다. 믿는 전반이 변합니다. 아빠타 2부에서 신념이 경험을 창조하는을 보여주는 데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혁신적입니다.

그걸 믿을만한 어떤 이유나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아”라 합니다. 그러자 아빠타가 “아직은 아니야”라고 대답합니다. 그 아빠타는 자신의 신념의 근거를 과거에 두는 것은 뒤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4형 신념체계에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과 더불어 근원의 존재로서, 아주 광범위한

• 계속

마음을 결정하세요 계속

매개변수 내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재구성하고, 미래 경험을 만드는 프라이머리를 창조하는 존재로 깨어나는 것에 대해

당신마음이 당신을 통제하나요 아니면 당신이 당신마음을 통제하나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재구성하는 근원의 존재는 다소 익숙해 질 필요가 있는 개념입니다. 당신이 당신마음을 통제하나요 아니면 당신마음이 당신을 통제하나요? 지금 내가 말하는 개념이 생소하다면 해볼만한 첫 번째 질문은, “내 마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입니다. 다음 질문은, “내 뭘 믿으려고 하는지 누가 결정하는가?”입니다. 물질 우주의 과거 사건들이 내 마음을 통제하나요 아니면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나요?

내 어머니는 때때로 성격이 급하셨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성급해하던 적이 있었나요? 눈바람이 치는 날 부엌 문간에 서서 내가 나가야할 지 고민할 때, 어머니는 “나가던지 안에 있던지”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내게 당연히 문제로 다가 옵니다.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집에 있어야 하나? 그리고 마침내 문을 열어 놓은 채 문 앞에 서있자 눈바람이 들어오고,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네가 결정 안하면 내가 결정해 버릴거야.”

스스로 결정하세요, 아니면 내가 당신의 마음을 결정해 버릴겁니다. 이것은 우주가

흔히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결정 안하면 내가 너의 마음을 결정해 버릴거야.” 그래서 누가 당신의 마음을 결정합니까? 우주가 당신의 마음을 결정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뜻대로 살면서 당신의 마음을 결정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미래의 얼마나 많은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의 결과를 이해한다면 아파타를 하기위해 모든 것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편안하다는 신념 속에 갇혀있고 계속해서 자기의 삶, 직업,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을 사보타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다고 하면서 상황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자의 의식이라고 불리는 것이예요!

따라서 가장 힘든 것을 발견할 때는 당신 스스로의 편안해하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신은 그것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발전입니다. 이것은 직면하는 노력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발전입니다. 농구책을 많이 읽는다고해서 농구스타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아파타 책을 읽어서 아파타가 되는 은 아닙니다.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파타는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이 이제 막 첫 아파타 경험을 했으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아파타를 할만한 가치가 있나요?” (청중들이 박수치고 환호한다)

감사합니다.



Star's Edge International®
237 N Westmonte Dr
Altamonte Springs, FL 32714
USA

407-788-3090 tel.
407-788-1052 fax
avatar@avatarhq.com e-mail
www.AvatarEPC.com

아파타, 다시 떠오르기, 생각태풍,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은 스타즈
에지의 등록상표임. 저작권 2007
스타즈 에지 인터내셔널.
모든 저작권 보유.

이 세계에서 아파타의 사명은 신념체계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차이는 각자의 신념들 뿐이며, 이러한 신념들은 쉽게 지울 수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옳고 그름의 싸움은 줄어들고 함께 하는 게임이 펼쳐지니 세계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